

인권탄압 부담과 수익 사이 월드컵 광고 카타르 딜레마

獨슈퍼체인 축구협회와 관계 끊기도 대부분 후원사 광고 수익 포기 못해 버드와이저, 남은 맥주 기부하기로

카타르를 둘러싼 인권탄압 논란에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 특색한 홍보 효과를 노리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광고주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경제전문매체 포천 등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 전부터 카타르를 둘러싼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원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유럽 등 서방 언론은 카타르에서 축구 경기를 갖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가혹한 근로 환경에 놓이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카타르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며 적발 시 최대 사형에 처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가혹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유럽 7개 나라 주장들이 경기 중 다양성과 포용을 지지하는 무지개색 '원러브(Onelove)' 완장을 차려고 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완장 착용 시 엘로카드를 주겠다고 사실상 금지 방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독일의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슈퍼체인 레

베는 22일 FIFA의 결정을 받아들인 독일축구협회(DFB)와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이 월드컵 시즌 동안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포천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50억 명의 시청자가 이번 월드컵을 시청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월드컵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FIFA가 창출한 54억 달러(약 7조3000억 원)를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코카콜라,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와 이동통신사 T-모바일 등은 이번 월드컵 기간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월드컵에서 후원사로 나선 76개 기업과 접촉해본 결과, FIFA 후원사인 7개 기업 모두 인권 논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광고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아디다스AG와 코카콜라, 폭스바겐AG,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 등 북미와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당국이 개막 이틀 전에 갑자기 맥주 판매 허용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현지에서의 맥주 판매 계획이 틀어지던 버드와이저는 월드컵 우승국에 남은 맥주를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19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사우디 승리 기뻐하는 빈 살만 왕세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사우디아라비아 대 아르헨티나 경기가 열린 22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왼쪽)가 수도 리야드에서 사우디 깃발을 든 사우디 빈 살만 왕자와 함께 자국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따에서 인싸로 FIFA 회장과 개회식 동석 사우디 왕세자 존재감 확인

카타르 월드컵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존재감 변화가 세삼 주목을 받는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1일(현지시간) 개막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옆자리에서 경기를 관전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중동 최고 실권자가 최고 귀빈 대접을 받은 것은 일찌감치 예견된 의전이었다.

그러나 수년간 무함마드 왕세자가 받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고려할 때 이를 극적인 변화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월드컵 본선이 지구촌의 거대 스포츠 축제이며 개막전 귀빈석이 국제사회 위상을 확인하는 단편으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은명의 괄목할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무함마드 왕세자의 개막식 참석을 평가했다.

통신은 "글로벌 스포츠의 간판적인 대회에서 어떤 귀빈보다 두드러지는 좌석에 앉아 활짝 웃는 모양새가 국제무대 주변석에 복귀한 사람 같았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국제사회 위상이 파도처럼 대에서 누구나 만나길 원하는 핵심 인사로 최근 급변한 건 사실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 권위주의자로 여겨졌다.

고질적 여성권 억압, 권력 정쟁전 과정의 대규모 숙청, 인도주의 위기를 부른 예멘 내전 개입 등이 그의 명성을 더럽힌 요인이었다. /연합뉴스



인니 지진 산사태 매몰자 수색작업 인도네시아 구조대원들이 22일(현지시간) 서자바주 치안 주르의 산사태 현장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서자바주를 덮친 규모 5.6의 강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지금까지 268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중국 이달 신규감염자 30만명 육박

당국 "코로나 3년 만에 가장 심각" "방역자원 부족 등에 통제 어려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달 신규감염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3일 중국 방역 당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전날까지 중국의 누적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2만2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두 배로 늘며 급증했다.

중국의 '제조 허브' 광저우와 인구가 가장 많은 충칭에서 매일 6천~8천 명이 나오고, 수도 베이징에서도 1천 명이 넘는 등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신장, 네이멍구는 하루 800명 안팎의 감염자가 나오는 등 수개월째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동안 잠잠했던 쓰촨과 산둥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3년 만에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 2급 순시원 후상은 전날 방역 상황 브리핑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확산 범위가 넓은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복잡한 감염 경로, 방역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예방과 통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임의로 층층이 방역 통제하거나, 과도하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제로 코로나 원칙을 견지하면서 20가지 방역 최적화 조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정밀 방역' 고수 입장을 밝혔다.

중국 방역 당국은 최근 잇따라 전국 화상 회의를 열거나 각 지방에 지도 인력을 파견, 20가지 최적화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20가지 최적화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제로 지난 10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국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다.

이 지침은 제로 코로나를 확고하게 관찰할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봉쇄 범위를 좁히고,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지양하는 등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 및 통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미·EU 가격상한 설정 앞두고 중국, 러시아 원유 구매 보류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액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일시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관련 사정에 밝은 원유 거래상들을 인용, 동시베리아-태평양양송유관(ESPO)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12월 인도분 상당량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았으며 이같이 보유했다.

러시아산 원유 판매자와 중국 측 구매자 양측 모두가 가격상한액이 어떻게 설정될지 명확해지기 전에 거래를 성사시키길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거래한 가격이 G7과 EU가 정한 상한액보다 높은 액수가 된다면 운송과 보험 등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상한액을 넘어선 가격에 수출되는 원유에 대한 운송과 보험 등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